



“초가을 낭만 가득”...해남군, 전국 최대 캠핑박람회 개최

내달 3-6일 나흘간 오시아노서 120여개 캠핑업체 참여 ‘지속가능 캠핑’ 주제...공연·캠페인·포럼 등 행사 다채

해남군이 오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지속 가능한 캠핑’을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 ‘2024 해남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캠핑관광박람회에는 120여개

캠핑레저업체가 참여해 각종 캠핑 용품, 캠핑카, 카라반 등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업별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기존 오시아노 캠핑장 외에도 임시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해 캠핑 등 호화하고 기업·개인 등 800여팀, 4천여

명의 캠핑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핑 운영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초가을 캠핑의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모두의 캠핑, 해남에 다 있다’를 주제로 지프, 자갈, 코베아, 캠프벨리 세보레, 밴즈 등 기업들의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캠핑을 테마로 태양열 부시크래프트, 폐현수막 캠핑의 자 만들기, 업사이클링 문패·바다유리

악세서리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존, 탄소중립라운지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은 10월5일 오후 6시 주무대에서 열리며 곧바로 오시아노 뮤직페스타 공연이 이어진다. 비오, 조광일, 나윤권, 송하예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음악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캠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걸맞게 모든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빈손 캠핑 캠페인’

을 운영한다.

빈손 캠핑 캠페인은 캠핑객이 신선한 해남 농수산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캠핑꾸러미 사전예약 판매로 지역사회 소비율을 높였다.

10월5일 오후 1시부터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들어선 해남126호텔 연회장서 캠핑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캠핑산업 포럼이 개최된다.

해남군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야외 행사에 대비해 진드기 등 해충 방제와 풀베기, 가로수 정비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년차를 맞은 캠핑 박람회를 올해 더욱 알차게 준비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지속가능한 캠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에서 올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군이 오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 '2024 해남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열린 2023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축제 현장과 오시아노 캠핑장, 2023 오시아노 뮤직페스타 모습. <해남군 제공>

‘무안돌김’ 지리적표시 등록...“품질·역사성 인정”

제28호 공식 등록...품질 ‘잇바디돌김’ 한정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무안돌김’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확정됐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돌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제28호로 공식 등록됐다.

2007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지역의 우수한 품질과 역사성이 깊은 특산물에 대해 상표권을 부여, 보호·육성·발전해 산업화에 이용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을 통해 무안군 김 양식 사업인 ‘무안돌김’이라는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얻고 등록 명칭을 보호받게 된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무안돌김’은 마른 김과 구운 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 방식은 지주식, 품질은 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해 품질 기준을 한층 높였다.

잇바디돌김은 일명 ‘곱창김’이라 불

리는 무안군의 대표 김 생산 품종으로,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청정해역에서 지주식으로 생산돼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무안돌김은 (사)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 주최한 전남 으뜸 김 품평회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최우수상 2회, 우수상 1회)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무안 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무안 김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군 지주식 돌김 채취 모습. <무안군 제공>

신안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정책 지원

신안군은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 전담 기구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을 ‘2025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

는 지원기구로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행 지원, 부문별 탄소중립 구축 사례 개발, 주민참여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이 있다.

신안군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담을 ‘탄소중립을 넘어 블루카본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도시 신안군’으로 설정

했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6개 부문별 전략과제를 도출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탄소흡수 거점으로 블루카본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을 이용한 흡수원 개발로 신안군이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목포지역세무사회, 사랑의 후원물품 부흥동에 기탁

목포지역세무사회는 25일 “전날 백미 10kg 30포(100만원 상당)와 은누리 상품권(40만원)을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흥동에서는 저소득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선정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목포지역세무사회는 목포청호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동으로 상인들과 주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타올과 예코백을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목포지역세무사회는 매년 무료 세무상담, 전통시장 장보기 및 회원 3명이

모은 후원금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종길 목포지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영 부흥동장은 “세무사회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며, 세무사회의 온정이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군,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착착’

총사업비 53억...공정률 40%·내년 5월 준공 목표

완도군이 주민 편의 복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1983년에 건립된 기존 금일읍사무소는 41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화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주차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새로운 청사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특히 청사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2020년부터 청사 신축 기본 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금일읍사무소 신축과 이전 방안 등

을 놓고 세 차례의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현 읍사무소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비는 총 53억원으로 지난해 ‘군민행복 정책 토크’에서 청사 연면적 확대 및 사업비 증액을 바라는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지상 2층에 연면적 1천136㎡ 규모로 건립한다.

읍사무소는 공공 청사의 변화 추세에 맞춰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미래 지향적으로 신축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신축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금일읍사무소 신축 조감도. <완도군 제공>

진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금일읍사무소를 단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의 문화·복지적 기능까지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읍사무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일을 다목적복지회관 1층으로 이전, 임시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 한우, 추석 명절 온라인 판매 급증

총 매출액 28억 중 온라인 주문 43% 차지

강진 한우 선물세트가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0여일 동안 한우고기 취급 4개소(강진완도축협, 명성축산농협, 착한한우명품관, 강진농협파머스마켓)를 대상으로 강진군 한우고기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매출액은 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판매액은 ▲판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 10억원(37%) ▲온라인·전화 주문 12억원(43%) ▲기타 편의점·마트 6억원(20%)으로 소평물 등 온라인 시장에서 강진 한우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올 추석에 이들 업체에서 강진 한우를 직매입해 도축 판매한 물량은 22마리로, 이는 지난해 추석 19마리로

다 12% 증가한 수치다.

강진군 지역 소평물인 초록민음강진에서 추석 명절 40% 할인 이벤트와 함께 전국 공기업, 기관·단체 등 500여 곳에 한우상품 제안서를 발송한 결과, 한우 상품 매출이 연간 500만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9천300만원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강진군은 한우협회강진군지부와 협력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강진만 출구는 갈대축제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 한우 무료시식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나주시-한전KDN, 취약계층 조명기기 교체 사업

2천만원 상당 ‘LED 전등·리모컨’ 무료 설치

나주시는 25일 “한전KDN과 상호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시설 점검과 함께 조명기기 교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전KDN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를 방문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설치할 계획이다.

한전KDN은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전과 화재 위험 등을 사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후 전기 설비 무료 교체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장현 한전KDN부사장은 “지역주민들

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주는 한전KDN(주)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